

4》양캠퍼스 49대 총학생회 공약점검



D 경희대학교 제49대
총학생회

6》폐시약통 외부 방치 실태



8》세계선수권대회 2관왕 강채영 선수



책임부총장제 공개에 교수의회 등 '반발'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학교가 지난달 11일 공개한 책임부총장제 시행계획에 교수의회와 '통합노조'가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도 높게 쏟아냈다. 업무연락 형태로 발송된 책임부총장제 도문건에는 현재 다섯 자리(서울부총장, 국제부총장, 의무부총장, 재정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인 부총장 직에 '책임부총장'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부총장 간 결재·보고체계 맨 위에 책임부총장이 있도록 바뀌고, 책임부총장직은 현 대외협력부총장인 한군태 부총장이 맡는다. 이에 교수의회와 설립준비 중에 있는 '통합노조'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교수의회는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와 교수 대상 메일링을 통해 책임부총장제를 '우리대학이 처한 고질적인 인사적 폐를 총망라하는 대

표적인 사례'라고 규정하곤 3 가지 논점으로 꼬집었다. 첫 번째는 법인 정관을 근거로 들었다. 법인 정관 제87조에는 부총장 직위를 현재와 같은 5 자리(서울부총장, 국제부총장, 의무부총장, 재정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로 정하고 있다. 교수

의회 이성근 의장은 "총장의 말 한마디에 규정이 무시되는 처사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책임부총장제를 주도한 미래정책원은 "책임부총장의 대외적인 직위는 대외협력부총장"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교수의회는 책임부총장으로 내정된 한군태 부총장의 자질에 대해 말했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은 올해 초 교수들이 평가한 한군태 부총장의 직무평가 점수를 들며 "전체 교수들의 절반이 넘게 (56%) 참여한 평가에서, 보직자들 중 최하점을 받은 한군태 부총장의 직위를 격상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근 의장은 "대

다수 구성원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인사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책임부총장으로 내정된 한군태 부총장은 "기준도 알 수 없는 교수 간 인사평가 점수를 당사자 동의도 없이 공개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반응이다. 한군태 부총장은 "교수의회는 교수 복지를 위해 있는 단체"라며 "총장제를 주도한 미래정책원은 "책임부총장의 대외적인 직위는 대외협력부총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직평가 결과에 관해선 "교수들에게 연구를 권하는 정책을 펴왔던 것의 반작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교수의회는 "책임부총장제 계획문건에 책임부총장의 업무로 명시돼 있는 '각 부총장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체계 마련'. '거

교적 사업에 대한 권한 및 책임부여' 등의 일들은 총장의 책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총장의 모든 고유 업무를 책임부총장

에게 떠넘기겠다면 총장은 도대체 이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며 "책임부총장 도입에 앞서 구성원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하고 새 거버넌스 변경안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노조도 마찬가지로 "책임부총장제도는 '무책임 총장제도'와 같다"고 주장하는 한편, "부총장 인사 신설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정책원 권범석 부원장은 "옥상옥"으로 책임부총장을 표현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권범석 부원장은 교수의회 등의 반응에 대해 "제도가 바뀌면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개진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적응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대외협력부총장의 역할이 늘어나는 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며 "이전의 정책부총장 제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며 "남부가 안 된 학생은 졸업이 불가하다"며 교수가 이를 관리한다고 밝혔다. 일반 학생들도 교수가 돈을 내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고 증언했다. 의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돈을 내지 않으면 졸업을 못한다는 불이익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연극영화학 학생이라면 당연히 내야 된다고 말하셨다"고 말했다. 공연제작실습비를 어떻게 겪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 자리에 참가한 학생들은 "공연제작실습비 납부를 강제할 순 있지만 안 낸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극영화학과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학과장 명의의 공연제작실습비를 내지 않으면 졸업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2015년의 게시물이 있었다. "8학기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졸업논문에서 Fail되는 점입니다"며 미납할 경우 졸업이 되지 않음을 시사했다.

김학민(연극영화학) 교수는 "돈에 대해서는 일체 개입한 적 없다"며 "돈과 졸업은 상관이 없다. 학생들이 돈을 걷어 공연비에 쓰는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이를 안내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들이 돈을 걷는데 교수가 체크를 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2015년 졸업이 안 된다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쓴 전 학과장인 연극영화학 이효인 교수는 "연극트랙의 내부규정은 잘 모르며 졸업불가 판단은 각 트랙교수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명의 관계자는 "안내는 학생들은 미납자로 따로 관리하고, 교수님이 직접 체크를 하신다"

지점이다.



지난달 27일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학문 공동체와 인권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본 토론회는 대학원생이 겪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지적하며 인권이 지켜지는 대학원이 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사진=이수형 기자)

대학원 인권토론회 진행 '대학원생 인권, 어디까지 왔나'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지난달 27일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학생 인권의 제도적 실천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패널에는 서정호 동국대대학원 총학생회장, 유현미 서울대대학원 대책위원장, 김민섭 (후마니티스칼리지), 최진환(기계공학) 교수가 참석했다. 사회는 일반대학원 송재룡 원장이 맡았다.

주최자인 일반대학원 윤단비(무

용학) 회장은 발제에 앞서 10월 9일부터 2주 간 진행된 대학원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2016년에 진행한 같은 설문에서 나온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1년 동안 해온 인권활동들이 다 무의미한 활동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난 노예처럼 일을 하지만 돈을 벌진 못한다"는 설문 반응이 있었다"며 "과도한 업무로 공부할 시간을 침해당하지만 돈을 벌진 못하는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권을 침해

받지 않고 자신에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지 얘기해 보자"는 윤단비 회장의 발제에 첫 발언을 꺼낸 이는 서울대대학원 대책위원장 유현미 씨였다. 유현미 씨는 지난해 발생한 '서울대 교수 성희롱 및 갑질' 건에 대응하고자 대책위를 만들어 일해왔다. 유현미 씨는 "서울대의 사건은 한 교수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대학원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권력관계와 부조리가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대학원이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 차례로 발언한 <나는 지방 대 시간강사다>의 저자 김민섭 씨는 대학원 인권실태조사 응답자 577명 중 63%가 본인의 신분을 묻는 질문에 '학생+근로자'로 답한 것을 두고 "당연히 지금의 대학원 생은 학생이자 근로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민섭 씨는 "조교 장학금은 장학금이라기 보단 노동의 대가"라며 "이 대가를 장학금으로 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했는데, 송재룡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5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66기 수습기자모집

모집대상 : 1학년,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자

모집일정 :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접수방법 : 대학주보 홈페이지 참조

(www.mediakhu.ac.kr/khunews)

전문가 칼럼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원(SW융합학) 교수 ▶7면



시선

사설

지층처럼 켜켜이 쌓인 공약 언제까지 쌓아 둘 것인가

임기 막바지인 양 캠퍼스 제49대 총학생회(총학) 공약 이행도를 점검했다. 올해 총학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해가 지나 3월 재보궐 선거까지 치르고서야 비로소 총학을 꾸릴 수 있었고 국제캠퍼스(국제캠) 역시 보궐선거를 거쳤다. 선거 과정에서는 잡음이 일기도 했다. 임기도 짧았지만 양 캠퍼스 총학 모두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양 캠퍼스 총학 모두 1학기 이후 주요 의제로 급부상한 대기순번제 폐지를 이끌어냈다. 서울캠 총학은 소모임 및 학회지원, 영화제, 대동제 등을 무사히 처리됐다. 국제캠 총학 역시 24시간 무인프린터 설치, 의료기관 제휴 등 복지 공약을 이행하고 축제를 성실히 치러냈다. 사안의 경증을 떠나 공약을 이행한 것은 분명한 공로이며,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를 내림이 마땅하다.

그러나 눈에 쉬이 보이는 공약을 젖혀 보면 풀어내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다. 서울캠의 학생회 회계감사 도입과 교육권 문제 해결, 국제캠의 캠퍼스 이원화 문제 해결과 같은, 하나같이 굵직한 정책공약들이다. 여리 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대답론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번갯불에 콩 볶듯 해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정당해지는 이유는 이 공약들이 최근 몇 년간 쌓여온 의제라는 점이다.

서울캠 47대 총학이 세칙까지 만들며 그 기반을 다진 학생회 회계감사는 연년을 이어와 현재 총학의 손에 넘어왔다. 개정을 위해선 전학대회를 통한 표결이 필요하지만 공약을 넘겨받은 서울캠 49대 총학은 전학대회를 소집조차 하지 않았다. 대동제 준비로 바빴다는 것이 이유다. 전학대회가 성사되지 않아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과 전학대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에서 공약 이행 의지가 있었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교육권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전입금 문제 삼으며 의제를 설정했지만 못 구성원의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 총학의 주장이 힘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오히려 후마니티스 칼리지가 재도약의 일환으로 강의를 늘려 일정부분 공약을 이행시켜 준 꽃이 됐다.

본분교 통합 이후 국제캠 총학이 크고 작게 주장해온 이원화 문제 해결은 올해도 지지부진했다. 캠퍼스 명칭을 변경하고 이원화 TF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국제캠 49대 총학이지만, 아직까지 TF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캠퍼스 명칭 변경이라는, 모든 구성원의 의중을 통합해야 하는 거대한 담론 역시 수면 아래 잠겨 있을 뿐이다. 임기가 짧아 시간이 부족했다는 해명도 말이 되지 않는다. 올해 국제캠 총학 회장은 48대 총학에서도 중책을 맡으며 당시 프라임사업에서 이원화 문제에 대한 ‘부총장의 서면 약속’까지 얻어낸 바 있다.

이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는 묵은 공약에 대한 진부한 질책이다. 임기가 끝나가는 현 총학에 대한 일갈이자 차기 총학을 준비하는 선본에 대한 충고이기도 하다. 이전 총학이 같은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던 이유를 되짚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권자와의 약속을 이행할 방법에 대한 진중한 고민을 하길 바란다. 50대 총학은 꿈꾸었던 바를 이루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혜정박물관에서 만나는 ‘서양인이 그린 우리 삶’

미디어·여론 동향 2017.10.23 - 11.5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혜정박물관이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으로 ‘서양인이 그린 우리 땅, 우리 삶’ 기획전을 진행한다.(**혜정박물관에서 만나는 ‘서양인이 그린 우리 삶’/대학주보 온라인, 2017.10.30**) 오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는 서양 최초의 한국전도 ‘조선왕국전도’를 비롯한 130여 점이 선보인다. 개항기 조선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맥Kenzie의 기록, 헤르만 산더의 사진과 보고서 등 서양인이 남긴 기록을 통해 과거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우리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주관 제4회 로고스 오후스 심포지엄이 안희정 충남도지사 특별 강연으로 열

만평

이래도 모른 척 하실건가요?



이 주의 주제 - 폐시약통 처리

비 안오면 그만이지, 안 건드리면 그만이지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처리가 미숙하다면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화학반응이나 유리병 파손으로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과에서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고를 한다. 하지만 지켜져야 할 안전 관련 규정들이 실험실 책임자의 안전 불감증과 단과대학의 확인 소홀로 무시되고 있다.

10월 20일, 폐시약통이 단과대 외부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전자정보대학 건물 외부에서는 강산인 질산, 염산 병이 외부에 방치되어 있었고, 생명과학대학에는 18병의 시약 통이 밀봉되지 않은 박스에 방치되어 있었다. 규정상 폐시약통을 보관해야 하는 철제 폐시약통 임시보관함은 아무런 병도 품고 있지 못한 채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며칠 뒤 다시 찾아가보니 이전의 것에 더해 27병의 시약 통이 바닥에 놓여 있었고, 이 중 6병의 뚜껑이 열려 있었다.

전자정보대학 건물 4층에 위치한 동서의학대학원 실험실과 생명과학대학을 취재한 결과 두 단과대학 모두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우리 실험실 책임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폐시약통을 외부에 방치해 놓은 사람이 없다.” 이에 더해 생명과학대학

은 “행여나 외부에 통을 방치해 놓는 문제가 생길까봐 항상 확인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반출된 폐시약 및 폐시약통 처리를 담당하는 관리과에서는 폐시약을 밖에다 그냥 방치한다면 누군가 병을 건드려 깨질 수도 있고, 비가 와 어딘가로 흘러들어 간다면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시약통 임시보관함 존재 이유를 밝혔다.

실험 폐기물 반출 의무는 실험실 책임자에게 있다. 행정실은 관리과에서 받은 안전관리 규정을 실험실 책임자에게 전달한다. 실험실 책임자는 대부분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조교들이다. 실험실 책임자는 시약병을 밀봉하지 않은 채로 외부에 방치하는 것에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행정실의 답변처럼 그 누구도 시약병을 외부에 방치하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많은 시약병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관리과에서 임시보관함이 작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었다. 미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번에 배출한 폐시약병들을 임시보관함 외부에 방치한다고 한다. 하지만 주어진 조건 하에서 보관함에 넣기 위해 시약병을 나누어서 배출하는 성의리도 보여야 한다. 안전은 귀찮다. 하지만 귀찮아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실험실 책임자들의 ‘비 안오면 그만이지’, ‘지나가다 안 건드리면 그만이지’라는 안일한 생각,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가 본인들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간 국립외교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그는 “모두가 선망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외교관을 선택했다”라며 “많은 외국인이 한국보다 일본을 선호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꼈고, 이를 외교로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학과에서 배운 전공 지식과 교양에서 얻은 인식들이 시험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후배들의 도전을 당부했다.

서울시내 9개 대학 교수단체인 ‘서울소재대학교수회연합회’(서교련)가 공식 출범했다.(**서교련 창립총회, 초대 이사장에 이성근 경희대 교수회 의장/헤럴드경제 외, 2017.10.27**) 서교련에는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교수회가 참가하며 이들은 대학 자율성을 찾자는데 뜻을 모았다.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경희대 이성근(부동산학) 교수는 “현직 교수회 의장단의 뜻을 모아나아가기 위해 모였다”며 “기존의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 한국 사립대학 교수회연합회와도 뜻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교련은 대학의 민주적 경영과 교권 확립, 대학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삼았다.

회의(會議)주의자들은 가라

세시봉

양윤주 (서울캠퍼스 뉴스팀장)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공약을 지키기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만든 여론조사기구, ‘신고리 5·6기 공론화위원회’가 결과를 내놨다. 국민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 시민참여단 471명이 2박 3일 동안 합숙토론을 하며 동시에 이뤄진 4차까지의 여론조사라는 대장정이었다. 그들이 일궈낸 답은 단순한 합의, 그 이상이었다. 시민참여단은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각종 자료를 섭렵하고, 질의응답과 분임토론을 하면서 사안의 전문가가 됐다.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잘 아는’ 시민들의 답이었다. 장기간에 걸친 숙의 과정 역시 공개되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그 자체가 공감과 정당성을 획득하기도 했다. 형식적 투표를 넘어 적법한 민주적 결정을 위해 다양한 이해집단들 사이에서 ‘실제적 숙의’가 이뤄진 ‘숙의 민주주의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 주된 평가다.

우리학교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상을 눈여겨 봐야 한다. 우리학교도 내 각종 회의체, 위원회는 세기 힘들 정도로 많다. 이들이 모여 학교의 각종 사안에 대해 회의를 한다. 그 회의는 보통 ‘대표자’로 구성된다. 대표자끼리 모여 회의에 회의를 거친다. 가히 ‘회의주의자’라 칭할만하다. ‘회의주의자’끼리 결정한 사안은 정작 당사자에겐 통보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공론화위원회’ 도입 시급

지난 1학기 기대 속에 도입된 ‘대기순번제’가 대표적이다. 올해 초 담당부서인 학사지원과, 정보처와 학생대표인 당시 정경대학 이동진(경제학 2012) 회장, 외국어대학 김주와(중국어학 2015) 회장이 모여 회의했다. 학생 편의를 위해 학생대표까지 포함해 회의를 거쳤다던 ‘대기순번제’는 오히려 전례 없는 불만을 샀다. 결국 적잖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됐음에도 대기순번제는 한 학기 만에 증발해 버렸다. 구성원의 의견이 심도있게 반영되지 않은 탓이었다.

학생 의견을 수렴하길 원하는 회의체에서 주로 선택하는 방법은 설문조사다. 우리학교의 설문조사는 대부분 대량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수많은 회의체가 저마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지를 뿐만 아니라 학생 메일함에 가지각색의 설문지가 수북하다. 설문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학생 대부분은 설문 주제에 관한 깊이 있는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얼떨결에, 혹은 그날의 ‘뻘’에 따라 설문을 진행한다.

학생은 학생대로 피곤하고 회의체는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한다. 예산낭비는 물론, 학생의 피로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다. 당장 대학구조개혁, 캠퍼스 간 유사학과 논쟁 등 장기간 이어지고 그만큼 복잡한 갈등 사안이 산적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구성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알고 내리는 판단과, 모르고 내리는 판단은 다르다. 과정이 부여하는 정당성 역시 중요하다. 현상에 대한 자발적 탐구와 이해, 그리고 토론의 방식은 또 다른 학습이기도 하다. ‘회의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해왔던 회의에 대해 ‘회의’를 느끼길 바란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해경 | 편집장 이수형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디렉터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비정규직까지 포함하겠다” ‘통합노조’, ‘복수노조’ 체제 선언

최명규 기자 gyumyeong@knu.ac.kr

통합노동조합(노조)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학원운영의 민주화’를 목표로 출범했다. 통합노조는 우리학교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조로 지난 10월 11일에 발족했다. ‘통합노조 준비 위원회’는 지난 발족식에서 ‘학교법인 경희학원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 함께하는 새 노조 결성’을 결의했다. 지난 2일까지 통합노조가 자회사인 k에코텍 직원 약 80여 명을 포함한 조합원 129명을 확보했다. 그러나 노조가 실질적인 협상권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본청인 경희대학교의 직원 중 최소 10%가 가입되어 있어야 단체 교섭 위원으로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노조는 오는 13일 민노총 산하 전국 대학노동조합에 가입할 예정이다. 통합노조 준비 위원회 박경규 공동준비위원장은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소속된 산별노조는 그 연대 규모가 매우 크다”며 “노동자가 큰 조직으로 단결한다면 학교와의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총장 선출 개선 지향

박 위원장은 “끊임없이 여러 직종을 만나는 학교는 이들 간의 차별대우를 통해

노동자를 분열시켰다. 지난 20여 년 간 노동자가 분열하는 사이 정규직이던 환경, 관리, 기술 기능직은 대부분 외부용역화되고, 사무직조차 50% 이상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며 “이는 전체적인 노동자의 힘 약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노조 설립취지문에 따르면 통합노조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총장선출 개선’을 지향해야 하는 가치로 선정했다.

통합노조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학교에 요구한다. 통합노조 층은 “인문학적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 학교에서 비정규직 교직원이 값싼 임금으로 남용되고 있다”며 “노동유연성이 필요 한 곳에서 비정규직을 최소화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교직원의 가치를 다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우리학교 비정규직 직원이 전체 직원의 절반을 넘어서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경희대 소속으로 집계된 직원은 모두 903명이다. 이 중 계약직 395명과 파견직 68명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직원의 수는 463명으로 전체 직원의 51%이다.

또한 통합노조는 이사회 내에서만 결정되는 총장 선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노조 층은 “경희학원 설립자인 조영식 박사가 초대 총장으로 임명된 1955

년 3월부터 현재까지 설립자 부자가 총장을 역임한 기간은 47년 8개월”이라며 “학교가 세워진 이후 3/4의 기간 동안 설립자와 그 아들들이 공공기관인 대학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로 군림해 왔다”고 주장했다. 우리학교 교훈인 ‘사상의 민주화, 학원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와 창학 이념이 봉건적 세습총장과 모순된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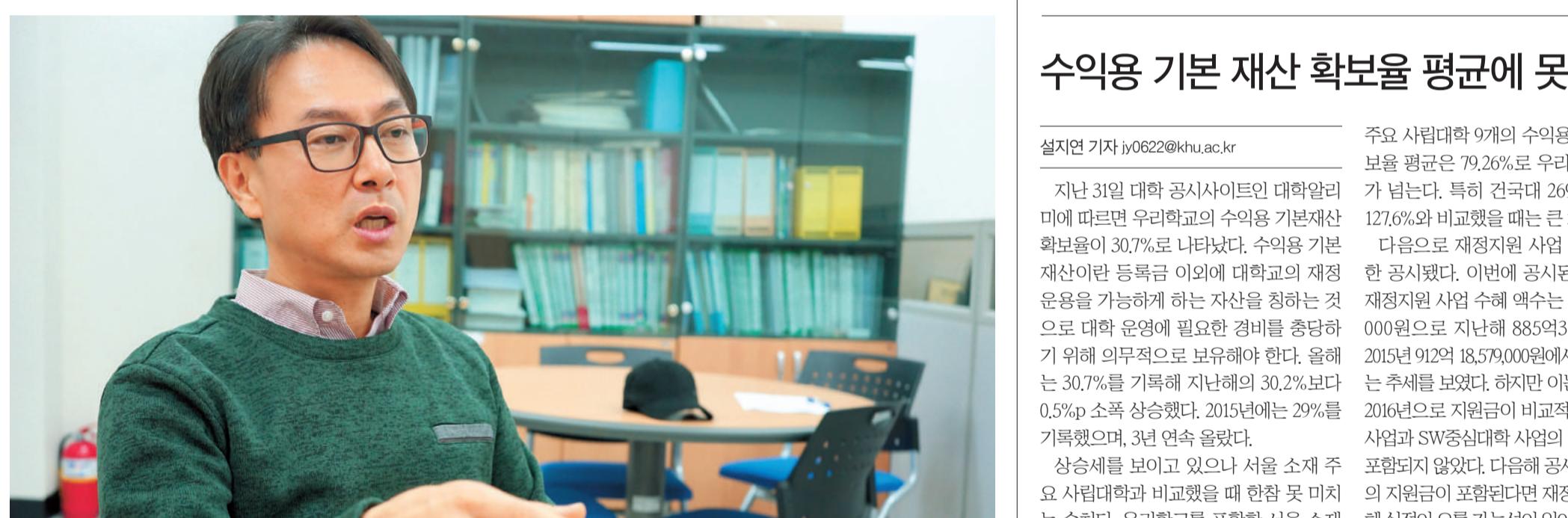
경희학원 전체 노동자로

노조 확장해 나갈 것

박 위원장은 “학교의 주인이 구성원으로 바뀔 수 있도록 ‘민주적 총장 선출’과 ‘구성원의 범인 이사선임 동의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이어서 “대학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며 “직원이 학생, 교원과 함께 학원 운영의 3주체 중 하나로서 정당한 자리를 잡고 비정규직과 차별받는 노동자가 없는 대학을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수노조에 대해 박 위원장은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며 “상호간 협력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학교법인과 대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통합노조는 경희학원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아는 만큼 가까워진다!
대인관계 이해 집단상담 프로그램

〈대인관계 집단상담이란?〉

친구, 연인, 가족 등의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대인관계 안에서의 나의 욕구와 상호작용을 면밀히 이해할수록 더욱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일시 / 장소 / 인원 / 신청방법

- 일시 : 2017.11.10~12.8 매주 금요일 오전 10:00~12:00
- 장소 : 중앙도서관 2층 세미나실1(전자정보실과 대접 사이)
- 인원 : 8명 이내
- 신청방법 : 선착순 전화접수 (02-961-0207)
*운영시간 9시~5시(점심시간 12시~1시)
- *반드시 모든 과정(5회)을 출석할 수 있는 학생만 신청하세요
*프로그램 이용은 *무료*입니다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내 삶의 주인 되기
자아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집단상담이란?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들으며 내 생각과 비교 검토도 해보고 자신의 대한 피드백도 들어보며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며 성장하는 모임입니다.

자아성장 집단상담이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의 속 깊은 감정은 무엇인지 알아가고 개방 수용하면서 진정한 자신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자기 이해와 감정에 대한 이해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 2017.11.10 ~ 2017.12.8 매주 금요일, 총 5회
오후 3:00 ~ 5:20

장소 중앙도서관 2층 세미나실1 (매점 옆)

신청 방법 선착순 전화접수 (02-961-0207)
운영시간 월~금 9:00 ~ 17:00

인원 최대 8명 (선착순 접수)
*반드시 모든 과정(5회)을 출석할 수 있는 학생만 신청하세요
*프로그램 이용은 *무료*입니다.

탄력근로제 ‘불만’ 누적 노동조합, “개선안 요구할 것”

박지영 기자 kitty2988@knu.ac.kr

대학본부가 9월 15일부터 ‘탄력근로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했다. 이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추가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1주의 근로시간 중에서 추가로 근로한 시간만큼 쉬는 것이다.

탄력근로제가 시행되기 전 직원들은 시간외근로를 하게 되면 추가로수당을 받았다. 그러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부서별로 주어진 근근수당을 소진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가 적용된다. 추가로수당을 받는 대신 시간외근로를 한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시간외근로를 한 시간 만큼 쉴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월요일에 시간외근로를 2시간 했을 경우, 다음 주 화요일이 돌아오기 전까지 근로시간 중에 2시간을 늦게 출근하거나, 빨리 퇴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근이 불가피한 부서들은 실질적으로 탄력근로제를 적용받기 어려워 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야근을 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인데,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의 업무가 고스란히 다음 야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이나 설비 관련 직종은 주말 근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종현 노조위원장은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난 뒤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부서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 1월 협상 때 이러한 부서들에 대해 수당지급을 기본으로 하는 개선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탄력근로제는 지난해 11월 단체협약에서 타결된 ‘통상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시행된 것이다.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제 18대 송혜경 전 노조위원장은 “올해 3월 통상임금제의 도입으로 부서별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 예산이 빨리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며 탄력근로제의 도입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송 전 노조위원장은 “작년 통상임금을 요구할 때 본부가 예산적인 부담이 있다고 말해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 17대 장백기 전 노조위원장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 재원이 없기 때문인데, 학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직원들에게 지우려 한다”고 말했다. 제 15대 김종원 전 노조위원장은 “대학의 행정업무는 9시부터 6시까지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게 되면 공백시간을 채울 사람도 마땅치 않고 학생과 교원도 불편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종현 노조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시간외근로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적정인원을 더 채용하거나 행정적인 효율을 갖춰야 한다”며 2018학년도에는 달라진 제도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 평균에 못미쳐

설지연 기자 jy0622@knu.ac.kr

주요 사립대학 9개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평균은 79.26%로 우리학교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건국대 269.2%, 연세대 127.6%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재정지원 사업 수혜 실적 또한 공시됐다. 이번에 공시된 우리학교의 재정지원 사업 수혜 액수는 883억 46,067,000원으로 지난해 885억 31,594,000원, 2015년 912억 18,579,000원에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기준년도가 2016년으로 지원금이 비교적 커던 LINC+ 사업과 SW중심대학 사업의 재정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해 공시에 이 사업들의 지원금이 포함된다면 재정지원 사업 수혜 실적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49대 총학생회

제49대 총학 공약점검



49대 자주경회 총학생회



#. 양 캠퍼스의 50대 총학생회(총학)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캠퍼스(서울캠)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국제캠퍼스(국제캠)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선거 기간이다. 지난 3월 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양 캠퍼스 49대 총학의 임기가 두 달 남짓 남았다. 지난 총학선거에서 서울캠 총학 '열·일' 선거 본부(선본)의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정후보와 김혜영(아동가족학 2012) 부후보가 당선됐다. 당시 전체 유권자 13,486명 중 6,827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50.62%를 기록했으며, 찬성률은 69.55%를 기록했다. 국제캠 49대 총학 선거는 경선으로 치러졌다. 지난 3월 국제캠 총학 '디딤돌' 선본의 '진도원(스페인어 학 2011) 정후보와 이화영(기계공학 2015) 부후보가 총 4180표를 얻어 71.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상대편 후보와 2,700표차였다.

양 캠퍼스의 49대 총학이 이런 학생들의 지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신문은 양 캠퍼스 총학의 공약 이행정도를 점검해봤다.

단발성 공약은 성공적… 중장기 공약은 ‘까마득’

서울캠퍼스 총학 공약점검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서울】총학생회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회장의 49대 총학생회(총학) 공약 이행도를 점검한 결과, 단발성 공약은 성공적으로 이행한 반면 학생사회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는 장기 공약 이행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49대 총학의 두드러지는 공약 이행은 3대 핵심공약 중 첫 번째, ‘수업권’에 해당했던 ‘대기순번제 폐지’다. 대기순번제는 지난 1학기 수강신청 당시 강의 매매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대기자 한도 1명’ 수강신청 대기순번제 시행된다/대학 주보 온라인, 2017.01.18) 그러나 대기순번제가 오히려 강의 순환을 억제한다는 학생 불만이 속출했다.

총학은 지난 5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자체 설문조사로 대기순번제 폐지에 관한 찬반여론을 살폈다. 폐지 찬성이 83.4%로 나오자 총학은 지난 6월 23일 수강신청 제도개선TF(Task force)에서 학교와 협의를 통해 2학기부터 대기순번제 폐지를 이뤄냈다.

총학, 다 된 밥에 숟가락 얹기?

결과적으로 보면, 총학의 공약 중 핵심 3대 공약 두 번째, ‘신축기숙사 입사지원’에 해당하는 ‘신축기숙사 경인지역 입사보장’과 ‘신축기숙사비 20만원 이내 3년 간 고정’은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총학과 무관하게 이미 진행 예정이던 사안이다.

행복기숙사 윤필영 계장은 “행복기숙사 기숙사비는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에 따라 결정되며 지난 3년간 월 19만 원에서 시작해 9천 원 정도 밖에 오르지 않았

다”며 “앞으로 3년간 고정한다는 것은 합의된 바 없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해 인상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행복기숙사는 원래 경인지역 학생 지원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신축 행복기숙사 매장수익에 관련해서도 “행복기숙사의 매장수익은 장학금으로 활용될 계획이 없으며 다만, 기숙사 운영비에 포함시켜 기숙사 비용 인상률을 최소화하는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양강의 수도 마찬가지다. 총학은 핵심 3대 공약 중에서도 ‘수업권’을 내세우며 ‘교양강의 수 부족문제’, ‘재수강 제한 추진 문제’ 등을 3대 과제로 짚었다. 더 나아가 ‘수업권’ 보장을 위해 ‘법인전입금 160억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이번 학기 중핵, 배분 교양강의 수는 총 187개로 지난 학기 195개에서 오히려 더 감소했다. 또한 4월 17일 2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배분이수 교양 40개 확대를 위해 긴급 추경예산 1억 원 편성’을 촉구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교양강의 증설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 10월 19일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가 밝힌 교양강의 증설 약속은 후마 재도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중핵과목의 증설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도 총학이 내걸었던 ‘다양한’ 교양강의 증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편, 장학금 공약 중 ‘경제지원 장학 중심으로 개편’은 공약을 제시한 시기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번 총학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지난 3월, 이미 장학팀에서 ‘꿈도전장학’을 신설하며 학생여량강화 장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장학제도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장학팀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며 “지난해부터 장학개선 TF와 학생 모니터링 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총학은 ‘재수강 제한제도 찬반여부 모바

서울캠 총학 공약명	이행정도
수업권 문제	△
신축기숙사 사용 및 지원	×
신축건물 및 공간 협의	×
경제지원 장학 개편	×
대선 의제 및 출석인정	○
입학금, 외국인등록금	△
통합회계운영세칙	×
소모임, 학회지원	○
간식사업	○
벚꽃영화제, 수강료 할인	△

대학동에 이주하고 남은 공간 활용을 두고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협의체 구성에 관한 언급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방안 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경대학 학생회 우예림(언론정보학 2015) 회장은 “2학기에 SPACE21 단과대학동으로 이사를 못하게 되면서 임의로 협의체 구성 날짜가 밀렸다”며 “협의체에 관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된 바는 있지만 일부 단과대에서는 학생회와 행정실 간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부총장실 측은 정서영 서울부총장이 새로 부임한 후에도 총학 측에서 협의체에 관한 접촉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통합 회계운영세칙제정’ 공약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 등 자치회비 사용주체들이 정기적으로 학생감사단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2015년 진행된 ‘자치회비사용 신뢰도 조사’에서 85.6%의 학생이 ‘단과대학 학생회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으로 당시 47대 총학은 학생자치기구 회계 관리 양식과 감사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전학대회가 무산돼 이를 48대 총학에 전달했다. 48대 총학 역시 같은 이유로 회칙 개정을 하지 못했고, 같은 공약이 현재 총학에게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전 총학의 공약을 이어받은 현 총학의 진행상황 역시 지지부진하다. 지난 1학기 총학은 전학대회를 열지 않았고 이에 총학권 회장은 “대동제 등으로 인해 전학대회가 열리지 못해 여름방학 중 중문위를 통해 미리 일정논의를 했고, 일시를 임시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7일 50대 총학 선거가 약 25일 남은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전학대회가 개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굵직한 공약에서 미흡

핵심 3대 공약 중 하나인 ‘신축건물 사용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단과대의 논의사항 공개’와 ‘신축기숙사 1층 직접 디자인’을 내세웠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간호대, 이과대, 한의대가 SPACE21 단과

학생 복지 공약 이행… 학사제도 개편은 ‘미흡’

국제캠퍼스 총학 공약점검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국제】국제캠퍼스(국제캠) 49대 총학생회(총학)의 공약 이행도를 점검해 본 결과 무인프린터 설치, 의료기관 제휴 등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학생 복지 관련 공약은 대다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원화 문제 해결, 학사 제도 개선, 입학금 산정 근거 공개와 같이 핵심 공약들은 아직 진행 중이거나 보류상태이다.

우선 복지 공약을 살펴보면 총학의 세부 공약 24개 중 11개가 복지 공약일 정도로 복지 공약이 주를 이뤘다. 학생회관에 24시간 무인프린터를 설치하고 영화·연극 티켓을 제공하는 이벤트 진행, 의료기관 제휴 협약 체결과 같이 이벤트성 공약은 모두 이행됐다. 또한 지난 7월 총학 주도로 해외탐방프로그램인 ‘KHUCC 프로그램’을 진행해 30여 명의 학생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학교를 홍보하고 있다.

캠퍼스 명칭 변경 ‘다음에’

캠퍼스 명칭 변경 문제는 49대 총학의 주요 공약으로서, 명확한 이원화 캠퍼스를 위해 ‘국제캠퍼스’라는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취지였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지평’을 캠퍼스 명칭으로 사용하고, 국제캠은 ‘예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분교 느낌이 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49대 총학은 명칭

변경을 통해 국제캠에 남아있는 분교 이미지에서 탈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총학은 ‘이원화 TF(Task Force)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여기에 국제캠 황주호 부총장, 국제캠 총학 국제캠 교수의회, 국제캠 노동조합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국제캠 구성원 모두 캠퍼스 명칭 변경에 합의를 했고, 평의원회와 발전위원회를 통해 이원화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캠퍼스 명칭 변경은 이번 49대 총학 임기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학의 임기는 두 달 남짓 남았다. 그러나 캠퍼스 명칭 변경을 위해 서울캠과의 협의도 필요하며, 변경할 명칭에 대한 구성원끼리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총학 진도원(스페인어 학 2011) 회장은 “위원회 설립으로 이원화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기구가 설립되면 다음 대 총학에서도 이 문제를 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 임기 안에 마무리 하면 좋겠지만 보궐 선거로 당선된 만큼 임기가 짧아 끝마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학사제도는 ‘아직’

학사제도 공약에 있어서는 수강신청 매출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던 대기 순번제가 시행 한 학기 만에 폐지됐다. 총학은 대기 순번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고,

국제캠 총학 공약명	이행정도
이원화 문제해결	△
SPACE21 진행	×
대기순번제 폐지	○
강의 수 증설	△
학사제도 개선	×
기숙사 문제해결	△
입학금, 등록금 문제	×
취업 박람회 개최	○
각종 이벤트	○
전광판, 무인프린터 설치	○

으며, 강의 수 증설을 공약했다. 하지만 학사지원과 문의 결과 2017년 2학기 강의 수는 증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 회장은 “TF를 통해 강의 수 증설에 합의가 됐다”며 “학사지원과에서 강의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2018년 1학기부터 수요가 많은 강좌의 대형 강의와 온라인 강의가 신설될 것”이라 밝혔다. 캠퍼스 간 다른 학사제도나 불합리한 학사제도 개선, 이월 가능 학점 확대 공약은 아직 합의된 것이 없으며, 남은 임기 동안 학사TF를 통해 논의를 해 갈 것이라 설명했다. 결국 학사제도 공약은 대기순번제 폐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안들은 논의 중이거나 진행 예정에 있다.

마지막으로 입학금 산정 근거 공개 공약은 현재 이행 보류 상태다. 이는 입학금 산정 근거를 학교에 요구해 공개한 후, 근거 없는 비용에 대한 차액을 반환받겠다는 공약이었다. 하지만 현재 입학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 결과에 학교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총학은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숙사 통금 시간 폐지’ 공약은 축소돼 이행됐다. 당초에 12시까지였던 제2기숙사 통금 시간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2기숙사 측과 논의과정을 통해 12시에서 2시로 연장하고 축제기간과 시험기간에는 통금 시간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기적인 기숙사 간담회 역시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고 총학의 임기가 끝난 다음 연도에 진행될 예정이라 답했다.

▶면에서 이어짐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송재룡 원장은 “이러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장학금이 노동의 대가임을)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학원생을 지원할 제도적 방안에 대해 김민섭 씨는 “대학원생을 후속연구자로 볼 것이 아니라 단독연구자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원생이 단독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할 창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학문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학교가 설립하기로 결정한 학내 인권센터에 관해선 “대부분의 대학 인권센터가 신고가 들어오면 징계를 권고하는 수준의 권한을 갖는데 그 치고 있다”며 “직접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인권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대학원 서정호 회장은 동국대의 사례를 들어 “제도변화에 앞서 인식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인권센터는 무의미할

것”이라 말했다. 서정호 회장은 먼저 “동국대에선 도제식 교육이 당연한 분위기”라고 운을 뗐다.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같은 답변을 피도록 지시하거나 점심시간마다 샌드위치를 배달하게 한 사례를 말하며 그는 “도제식 교육이 만든 수직적 관계 탓인지 인권침해가 가벼운 일로 인식되며, 동국대에선 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서정호 회장이 “교수 원아웃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며 징계 이후에도 쉬어 학교로 돌아오는 ‘불사조 교수’에 대한 토론이 오가기도 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김민철 교수와 공과대학 최진철 교수, 김중섭 경상대 교수 등 교수패널들은 물의를 일으킨 교수에 대한 법적 혹은 사회적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패널들은 이후,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연구비갈취, 행정조교 인건비 액수의 적합성, 대학원 선후배 간 폭언·폭력 사례 등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곤 토론을 마쳤다.

교수 싸움에 학생 졸업 등터진다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서울】 지난 2일 일반대학원 아동 가족학과 A학생이 학과 교수 교수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은 “학과 교수들의 불화로 비롯된 교수회의의 비상식적 결정 탓에 교육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논문공개발표회가 지도교수 별로 나눠 진행하게 된데서 비롯됐다. 논문공개발표회는 작성증인 논문에 대해 교수들에게 공개적인 피드백을 받는 자리며 졸업요건인 논문심사를 받기 위한 필수절차다. 논문공개발표회가 열릴 수 있는 시기는 일반대학원 전체에 정해져 있고, 3인 이상의 교수가 참석해야 열린다. 아동가족학과 외 타 학과들은 이 논문공개발표회를 학생 구분 없이 일시에 진행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아동가족학과 교수회의 결과에 따라 논문공개발표회가 지도교수 별로 진행돼 학생들이 교수 3명을 직접 ‘모시러’ 다니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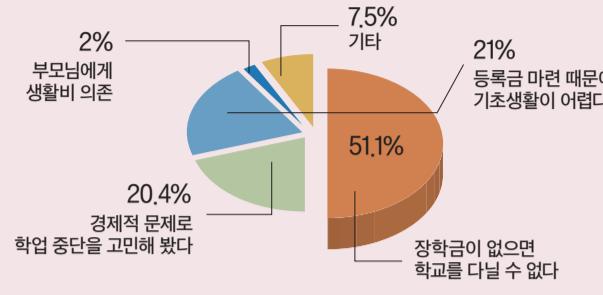
문제의 핵심은 각 교수들이 이를 학생의 논문공개발표회에 참석하길 빈번하게 거부해 매학기 진행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은 “교수 간 불화가 심해, 몇몇 교수들

이 사이가 나쁜 교수를 지도교수로 두 학생들의 논문공개발표회 참석을 고의로 거부하며 괴롭히고 있다”며 “학과 규정이 바뀐 이후 논문공개발표회 성사여부가 불안해, 논문 쓰는 데 지장이 크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논문 공개발표회 관련 규정이 달라진 배경은 교육목적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교수는 학생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밝힌 내규변경의 이유는 “한 교수의 자극적인 연구 피드백 때문에 학생들이 상처를 받아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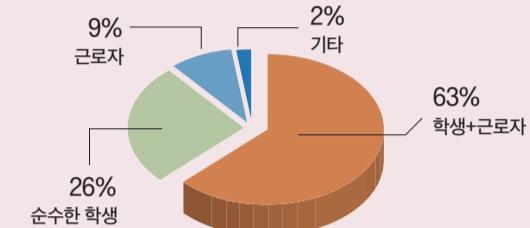
일반대학원 송재룡 원장은 ‘아동가족학과 내규를 복구시켜달라’라는 이 학생들의 요청에 “(원장 본인의) 권한 밖의 일이다”라고 답했다. 송재룡 원장은 이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학과 밖에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교수회의가 비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된다”는 근거로 앞으로 학과에서 진행될 교수회의 의결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생활과학대학 오윤자 학장은 이들에게 “교수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A학생은 “여타 대학원처럼 업무상의 부조리도 존재하지만, 비민주적인 학과 운영 방식 탓에 졸업이 불안한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며 개선을 호소했다.

2017 대학원 인권 실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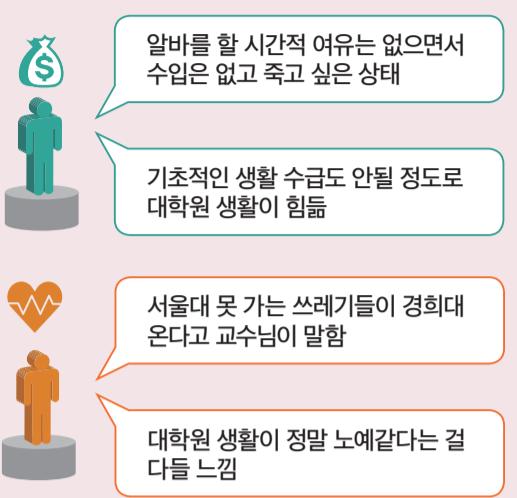
대학원생의 경제적 환경



대학원생은 본인을 무슨 신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설문방법 : 구글 품 조사
총 응답자 : 577명기간 : 2017. 10. 9~2017. 10. 20
대상자 정보 : 경희대 대학원생을 비롯한 타대 대학원생
제공 :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대학원생의 인권침해 사례

“인권센터, 실질적 권한 가져야”
의식·권한·구성 등 고민필요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10월 27일 열린 ‘학생과 교수가 함께하는 열린 인권 토론회’에서는 물 밑에 있던 대학원생 인권 침해 사례가 수면으로 올라왔다. 인권침해의 문제는 대학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학생에게도, 직원에게도, 심지어는 교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수업 중 교수에게 막말을 들어야 하는 학생, 교수의 폭언을 견뎌야 하는 직원, 교수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교수 문제의 중심에는 ‘인권’이 있다. 우리학교는 2017 입금 및 단체협약의 결과로 2018년 1학기까지 독립적 지위를 갖는 인권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인권센터가 빛 좋은 개살구로만 남지 않기 위해 갖춰야 할 모습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가장 선언되어야 할 것은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김민철(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의식과 제도는 필요 같이 가야 한다”라며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등 모두가 인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인권센터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교육의 제도화’이다. 러시아어 김민섭 씨는 “매 학기 모든 구성원에게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고 알려줘야 한다”며 “사건이 발

생했을 때를 위한 매뉴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일어난 성희롱을 공론화하기 위해 출범한 대책위원회의 유현미 회장은 구성원별 맞춤 교육을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유 씨는 “서울대 인권센터는 인권 교육을 실시하지만, 정교수에게는 이수 의무가 없어 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찾아가는 교육, 대상에 맞춘 교육 등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센터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권한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유현미 씨는 “성희롱 사건에서 인권센터의 권한은 조사와 권고 수준이었다”며 “권고는 강제성을 띠지 않기에 인권센터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센터가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유 씨는 강력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리조치를 소극적으로 한 경우, 주위 사람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사안이 심각해질 경우 피해자를 법적으로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과정이기 때문이다. 대학원장 송재룡(사회학과) 교수는 “사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

스텝까지 구축해야 한다”며 인권센터의 역할이 학교 내부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집단이 내부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또한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 서정호 회장은 인권센터라는 제도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피해자 대신 인권센터에 제3자 고발을 시도했지만 인권센터는 당사자 증언을 요구했다”며 “인권센터 구성원이 모두 내부 사람이라 학내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환경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특정 방향에 유리하도록 판단이 흐르거나 사실이 왜곡되지 못하도록 학생과 교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해결방법이 아닐까 싶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대학원 총학생회 윤단비(무용학) 회장은 “대학원을 넘어 학부와 함께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인권센터에 대해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권센터를 기대한다”며 “법적인 절차는 전문위원회에 진행하고,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상황을 유연하게 해쳐나갈 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남겼다.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1. 신청대상 : 2004~2007학번 대학생 중, 금학기 면제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2.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 “대학영어”
- “시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학논문작성법”
-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구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3. 면제기준 및 자격

가. 대학원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 공인영어시험능력으로 계열별 TOEFL, TOEIC, TEPS 일정점수 이상자
- 국제화증인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 영어권 국제 외국인 특별입학자
- Intensive Program DEEP, LEAP, REACH 이수자
- 국제교류처주관 영어권 학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4. 이수면제 기준표

면제 종류	계열	대학	면제 기준				면제내용
			TOEFL CBT IBT	TEPS	TOEIC	G-TELP	
외국어개방 사회계열	외국어대학 국제·경영대학	207 이상	76 이상	600 이상	700 이상	666(Level2) 이상	과목면제
공학계열 자연과학 계열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우주과학과)	193 이상	69 이상	551 이상	650 이상	577(Level2) 이상	과목면제
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	190 이상	68 이상	530 이상	640 이상	566(Level2) 이상	과목면제	현제 최종 점수에 한함
예체능계열 체육대학 예술·디자인대학	147 이상	51 이상	400 이상	510 이상	570 이상	577(Level3) 이상	과목면제

※ 외부 공인기관 자격증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성적표(원본)를 제출한다.

면제 종류	자격	면제내용
국제화추진 전형입학자	국제화추진 TOEFL, TOEIC 전형 입학자	과목면제
특례입학자(영어권)	영어권 국적 외국인 또는 영어권 교포자녀, 영어권 재외국민	과목면제

면제 종류	자격	면제내용
Intensive Program 이수자	국제교류처가 인정하는 - 재학 중 영어권 학교자녀/외국인 - 외국 영어권 국적 과정을 수료하고 성급성적을 취득한 자에 한함. - 영어권 국가에서 학점 인정 가능한 영어 어학연수/교직(외국대학, 대학 부설 및 공인 교육기관 Program)에서 48시간(3시간×16주) 이상 이수한 후 고교 성적을 취득한 자. - 평생교육원 DEEP, 국제교육원 LEAP, REACH 집중 프로그램 과정을 출석한 80% 이상, 성적상급수준으로 수료한 자.	과목면제
7.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양식은 경희대학교 학사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증빙서류 원본	

※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Intensive Program 이수자들은 증빙서류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황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며, 통과자에 한하여 과목을 면제한다. (신청 기간에 제출)

※ 공인인증(ABEE) 내상자는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나. 외국어대학 학점교양 이수 면제 기준

- 외국어대학 학점교양 이수 면제 예외사항
- 자신의 제3전공이나 이전 타 전공의 외국어 1, 2년계를 이수하는 것으로 핵심교양 이수를 대체할 수 있음

[대체교과목]

제1단계	제2단계	총 이수학점
초중중국어회화1	초중국어회화2	6
일본어강독1	일본어강독2	6
스페인어1	스페인어2	6
러시아어1	러시아어2	6
초급프랑스어1	초급프랑스어2	6

※ 이수면제 신청하는 외국어대학 소속 학생은 외국어대학 행정실(T031)-201-2201에 별도 접수 바랍니다.

다. 사고와 표현 영어 이수 면제 기준 및 자격

- 단계: ‘독후감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평가 80점 이상
- 단

보도

방치된 폐시약통, 위험하다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nu.ac.kr

【국제】 실험실이 존재하는 단과대학 외부에 버려진 폐시약통이 학생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시약 중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 및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도 존재하기 때문에 처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려한 폐시약통이 무방비 상태로 외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시약 및 폐시약통 처리는 관리과가 담당한다. 관리과에서는 실험실이 있는 단과대학에 연 1회 업무연락으로 실험 폐기물 처리 매뉴얼을 전달한다. 국제캠퍼스 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전자정보대학 4층 동서의학대학원 실험실이 대상이다. 우선 각 실험실 책임자가 규정에 따라 폐시약·폐시약통을 건물 외부에 설치된 '임시보관함'으로 반출한다. 관리과는 임시보관함에 보관 중인 폐시약·폐시약통을 수거해 관리팀 소속 폐기물 보관창고로 이동한다. 이후에는 실험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한다.

관리과에서 전송하는 교내 실험 폐기물 분리 배출 안내문에 따르면 임시보관함은 각 건물 외부에 설치된 '실험실 폐기물 보관함'으로 명시돼 있다. 세부적으로 물로 희석된 묽은 시약은 20리터 막통(전용 용기)에 모아서 밀봉한 뒤 반출하고, 농도가 짙은 시약은 보관 용기에 담긴 그대로 밀봉한 뒤 종이박스에 모아 임시보관함에 넣어야 한다. 관리과 고역기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단과대학 외부 철제 임시보관함에 넣는 것이 규정"이라며 "밖에 방치한다면 병을 건드려 깨질 수도 있고, 비가 와 어딘가로 흘러들어간다면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폐시약통이 생명과학대학 뒤편에 방치돼 있다

(사진 = 이후승 기자)

전자정보대학(전정대) 건물의 경우 강산으로 분류되는 염산, 질산 등의 빈 병이 실험실 폐기물 보관함 밖에 무방비로 놓여 있었다. 전정대 행정실 박은규 계장은 "전자정보대학 4층에 있는 동서의학대학원 실험실에서 사용한 시약일 확률이 크다"며 "동서의학대학원에 협조를 부탁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동서의학대학원 행정실 측은 "모든 실험실 책임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폐시약통을 임시보관함 외부에 두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을 내놨다.

생명과학대학은 상황이 심각했다. 11월 2일 임시보관함은 비어있었고 바닥에는 27개의 시약병이 놓여 있었다. 그 중 6개의 병은 밀봉이 되지 않았다. 시약병이 들어 있는 종이 박스도 밀봉 되어있지 않았다. 생명과학대학 행정실 측은 "안전점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보관함에 넣으려

는 규정을 학생에게 전달한다"며 "행여 외부에 통을 놓는 일이 발생할까봐 시약 통이 밖에 놓여있는지 항상 확인한다"고 말했다.

실험실이 존재하는 공과대학에서는 시약을 모아서 배출하는 20리터짜리 막통이 밀봉된 채로 놓여있었다.

관리과에서는 "전임자가 임시보관함을 수요에 비해 작게 만든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에는 예산에 따라 보관함을 더 크게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했다. "학생들이 규정상 병째로 배출해야 하는 시약통을 하나씩 배출하지 않고 실험실 안전관리나 리모델링과 같은 정리를 할 때 한꺼번에 버리기 때문에 종이박스 채로 보관함 밖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전관리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교내 학생들의 불안을 키우는 책임자들의 변화가 촉구된다.

"듣기평가도 아니고…" 국제캠 화상 강의 또 말썽

신정인 기자 sjj0201@knu.ac.kr

경영대학 화상 강의가 또 말썽이다.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경영대학 강의를 화상으로 수강 중인 한 학생은 "매시간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필기 내용도 알아보기 어렵다"며 불만을 제보해왔다. 비슷한 내용이 교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게시됐다. 기계 결합으로 수업 진행이 어려워 갑자기 수업이 취소된 적도 있으며 평상시에도 문제가 자주 발생해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경영대학은 경영학을 다전공하는 국제캠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캠에도 경영학 강의를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담당 교수수가 직접 국제캠에서 강의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화상 강의 시스템을 활용해 서울캠퍼스 강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화상 강의는 전용강의실인 외국어대학 306호에서 진행한다. 현재 개설된 화상 강의는 1개이며 이는 지난 학기에 비해 1강좌 감소한 수치이다.

문제는 이런 화상 강의의 학습 환경 문제가 이번 학기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학기에 화상 강의를 수강한 허욱(러시아어학 2013) 학생은 "화상 연계문제로 휴강했던 적이 있었다"라며 "현재 SNS 등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 모두 지난 학기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수업을 듣는 학생들 모두 화상 강의 자체가 갖는 한계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고 덧했다.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와 네트워크의 오류를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경영대학 행정실 배금옥 과장은 "회선 상의 문제로

인해 연결이 잘 안 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어대학 송혜경 실장은 "화상 강의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영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나 프로그램이 외국어대학에 설치된 것과 잘 호환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 수업 진행에 여러 차례 제동이 걸리자 두 단과대에서도 기계 상의 문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기기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화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심규영(회계세무학) 교수는 "중간고사 기간에 대대적인 점검을 부탁했었다"며 "기계 교체 및 정비 후 테스트 녹화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돌아오는 수업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는 매시간 녹화를 하고 연결에 문제가 있는 날은 녹화본을 KLAS에 업로드할 예정"이라며 차선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의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책은 또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수업 시작 10분 전에서 야 기계를 켜고 연결을 시도하니 수업을 제 시간에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으며, 기계 수리 담당자도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 문제도 큰 것 같다"는 말을 전했다. 실제로 해당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조교 역시 "수업 전에 일찍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수업이 연속으로 있어 이전 수업 중에 들어가서 점검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화상 강의라는 특수한 환경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좀 더 충분히 주어진다면 강의의 지연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이다. 화상 강의를 진행하는 두 단과대는 강의의 특수성을 고려해 통신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50대 총학 선거 임박, 서울캠 27일, 국제캠 21일부터

설지연 기자 jy0622@knu.ac.kr

양 캠퍼스 50대 총학생회(총학) 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서울캠퍼스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후보자 등록기간을 거친 후 16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24일 까지 선거 운동이 진행되며, 투표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 될 예정이다.

특히 국제캠은 이번 투표부터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제4

차 확대운영위원회 결과 '전자투표 찬반안'이 2/3이상 찬성으로 가결됐고,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회칙 근거 또한 마련됐다. 서울캠은 지난 47대 총학 선거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해왔다. 이로써 양 캠퍼스의 총학 선거 모두 전자투표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제캠 전자투표는 투표와 접계만이 전자 시스템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서울캠과 달리 모바일을 이용한 원격 투표는 불가하다.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Dance

2017 무용학부 창작공연



일시 | 2017.11.13(Mon.), 14(Tue.) 5pm

장소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관 다목적홀 (102호)

주최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후원 | 무용학부 49대 학생회, 문화아이템팩토리센터

11월 2째주(11.06~11.10)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1. 기업체 채용행사 및 취업특강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키세이 뉴욕 인턴쉽 설명회	11.06(월) 13:00~15:00	청운관 B117호	취업 설명회
키세이 뉴욕 인턴쉽 채용면담	11.06(월) 15: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한샘 GDP 외국기업 설명회	11.06(월) 15:00~17:00	청운관 B117호	취업 설명회
세이상상 재용 설명회	11.06(월) 16:00~16: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청년취업아카데미 설명회	11.06(월) 16:00~18: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취업 설명회
루이 캠벨 재용 설명회	11.07(화) 14:00~15:00	청운관 B117호	
금윤관취업상담	11.07(화) 16: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취업 특강
JW 메리어트호텔 서울채용설명회	11.07(수) 10:00~12:00	청운관 B117호	
국내외공사취업제11 상담회 (코리아제채용면담)	11.08(수) 13: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비몬 코리아 채용설명회	11.08(수) 15:00~16:30	청운관 B117호	
비몬 코리아 채용면담	11.08(수) 16:30~17:30	청운관 1층 면접상담실	
아워홈 채용설명회	11.09(목) 14:00~16:00	청운관 B117호	
재직동문과 함께하는 사회진출 Career Day	11.07(화) 12:00~13:30 11.07(화) 13:00~17:00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오픈랩운동장 기숙사	특강
재직동문과 함께하는 사회진출 Career Day	11.07(화) 12:00~13:30 11.07(화) 13:00~17:00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오픈랩운동장 기숙사	직무연습
	11.10(금) 09:00~18:00	홈페이지 참조	취업프로그램

※ 위 일정은 기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시작 시청'과 '이동(행사당일까지)'는 종합 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연수신청 - 청년신청 - 해당 설명회 '신청하기' 클릭 - 원료

* 신청 후 확인하여 참석하는 위치입니다.

* 출석 협조 및 출석증명증으로 후 청년설명회 입장권에서 발급 및 배부

* 기타 사항은 취업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가이드 참조

2. 취업지도 및 채용 컨설팅(면접장)

- 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면접질문 및 면접 컨설팅

상담유형	일시	담당 컨설턴트	장소	신청방법
개인	월요일 ~ 금요일 (전문 컨설턴트)	이연희 박언경 홍상기, 오신종	오비스쿨 355호 제법학관 107-2호 청운관 6번 상담실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 신청

* 상담 신청자 의무: 취업준비도 검사(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청 - 후 각 회의 2회 필수

* 주의사항 - 상담 일정 취소 불가(상담일 일정 전기기 가능, 최대 3일 전화 연락)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다음일 2부씩 출력하여 지원(필수)

3. 2017년 하반기 채용 컨설팅 리커링

신청 기간	일시	모집 대상	신청방법
~2017.11.12(화)	홈페이지 참조	기출업자,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	EY 웹페이지(http://www.ey.com/kr/ko/careers/students)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http://job1.knu.ac.kr>) · 이메일 <https://www.facebook.com/khujob> · 연락처 02-961-0167~8, job@knu.ac.k ·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처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문가 칼럼



이성원
SW융합학 교수

우리는 당신이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커다란 꿈을 이루기 위한 자그마한 도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빛나는 꿈을 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길은 소프트웨어 전공자인 우리에게 물으면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배우고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제안서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멋진 수식어로, 혹은 “인간은 필요 없다”라는 무서운 베스트셀러 제목으로, 혹은 “대량 실업자 시대”라는 겁박으로 이 글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캠퍼스에 소프트웨어융합학과가 생겼으니, 학과장으로서 흥보를 하고자 이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다소 뜻밖의 계기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경희가족이라면 한번은 제목을 접했을 ‘미래대학리포트 2015’. 55%의 학생이 대학을 다니는 이유를 ‘취업’이라고 답할 때, 동시에 34%의 학생은 ‘가치실현’을 이유로 꿈았습니다. 다른 대학이 비전공자를 소프트웨어전공자로 바꾸고자 할 때, 우리는 경희대학교 학생이 자아와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고민했습니다. 또한 본인 전공의 전공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도구로 삼아 취업과 창업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목표가 아닌 도구입니다. 인간의 삶이 보다 편안해지고 시간과 정신적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기술 발전의 목적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DB

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보다 가치있는 일을 이루어 가도록 바라는 것이 기술을 만든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쓰지 라는 기술적 사고를 중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하는 것을 먼저 꿈꾸어야 합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소프트웨어도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의 사람과 직업을 소프트웨어 전공자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같은 언론사는 웹서비스 및 현실 문제에서 소프트웨어 전공자보다 관련 전문 지식을 확보한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련 전문 지식을 Domain-Knowledge라고 합니다. 인공지능도 사실은 소프트웨어 보다는 선형대수, 통계, 확률 등 수학적 지식이 중요하며 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되, 제일 중요한 정보는 목표 대상이 되는 분야의 전공 지식입니다. 신규 직업인 Data Scientist의 3대 역량도, ‘수학적 지식’과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그리고 분석할 대상이 되는 분야의 ‘전문 지식’입니다. 본인이 전공 지식기반의 꿈을 꾸면, 소프트웨어는 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생산적으로 이루도록 도와주는 작은 도구입니다.

미국에서는 Micro College라는 소

프트웨어 교육 방식이 유행입니다.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 4년의 대학 학부 과정을 다시 교육하지 않고 수개월의 단기간 소프트웨어 교육을 “수강자 목적 지향으로 선별된 교육 과정”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현실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인 교육을 수행합니다. 세계최고의 창업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미국의 ‘싱글래리티대학’ 역시, 10주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서 창업전문가를 양성하는 초단기 과정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배우기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과간의 벽을 넘어서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꿈을 위한 도구일 뿐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겼다면, 다음으로 권하고 싶은 덕목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녀야 하는 학과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주어질 때 “이 문제는 OO학과 사람이 풀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과라는 장벽을 넘어서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한 공부를 하고, 실천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학과의 졸업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서 활용하는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최고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음악 소프

트웨어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미술 소프트웨어는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하고 사용하지,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기계화가 가능한 것을 기계화하여, 해당 분야에 속한 사람이 더 고차원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진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인공지능과 기계로 대체된 인력을 보다 고차원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재교육하여,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보다 고차원으로 가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과간의 벽을 넘어서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세상은 옵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걱정이 된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전문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소프트웨어를 도구로 사용하여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효율적으로 그 일을 이루면 됩니다. 보다 고차원적인 고민과 자기계발을 이루어 가십시오. ‘전공’은 사랑하되, ‘학과의 벽을 넘어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여마당

정혜윤
(자율전공학 2017)



그냥 아는 사람 이야기

아는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 친구의 꿈은 검사였다. 사법시험에 폐지된 지금, 검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로스쿨 가려면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그래서 그 친구는 상경을 결심했다. 첫 입시의 결과는 좋지 않았고 형편이 어려웠던 친구는 재수학원비조차 마련하기 힘들었다. 결국 선택한 것이 ‘독학재수’였다. 다행히도 우리학교에 들어오는 데 성공했더란다.

대학을 진학하며 그 친구가 꿈꾼 것은 분홍빛 캠퍼스 로망도, 청춘을 불태우는 밤도 아닌 소소한 캠퍼스 나날들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나날조차 ‘돈’이 필요했고, ‘지방 유학생’으로 생활고를 예상치 못했던 것도 아니었다.

소득분위 덕에 4년 장학을 약속받아 학비 걱정은 덜었다. 그 친구는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월세와 식비, 교통비, 책값 등을 모두 친구의 몫이었다. 제일 별이 좋다는 과외를 선택했다. 수업은 오전으로 몰고, 매일 밤늦도록 과외를 했다. 짬짬이 카카오톡으로 임시 상담을 해주는 컨설팅 아르바이트도 했다.

소소한 대학생 생활 꿈꿨지만…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

현실은 잔혹했다. 먹고 살기 위해 수업 외 시간을 모두 할애했는데, 장학금을 받기 위한 학점 기준이 마음을 짓눌렀다. 장학금을 받는 조건에는 봉사도 포함됐다. 생활을 위해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장학금을 위해 공부와 봉사를 해야 했다. 공부를 할 시간을 내려면 과외를 줄여야 하고, 그러면 생활을 못하니 진퇴양난이 따로 없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생활비 장학을 찾아봤다. 생활비 장학은 교내외를 찾아봐도 극소수였고 그나마도 특정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던가, 특정 분야에 진출할 인재여야 한다던가 하는 조건이 따라붙었다. 학점만 충족하면 등록금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저소득층의 학업이 보장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미쳤다. 대학생의 58%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든다는 뉴스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친구가 정말 힘들어 했던 건 이 모든 상황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학교를 다니는 내내 반복될 일이었다. 조금이라도 돈이 모이면 집에 보태야 했고 동아리, 학회, 대외활동은 남의 일일 뿐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용돈으로 각종 친교모임, 술 모임에 참석하면서도 시험기간엔 공부만 할 수 있는 이들이 보였다. 부러운 마음에 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있다. 왜 이런 작은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 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대학생 개인의 잘못일까, ‘흙수저’로 태어난 탓일까, 장학제도의 허술함 때문일까. 이제 누굴 탓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탓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이야기다.

고작 21살의 그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 우리사회와 대학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고찰해봐야 한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J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보도

경희대 신궁의 시작은 ‘멋있어 보여서’

국가대표 강채영 선수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세계 최강 대한민국 양궁계에는 올림픽 금메달보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매년 치러지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국가대표가 된 강채영(스포츠지도학 2015) 선수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2017 현대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당당히 2관왕을 차지했다. 경희대와 대한민국을 당당히 빛낸 강채영 선수를 만나봤다.

강 선수가 처음 국가대표로 발탁된 해는 2015년이었다.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국가를 대표해 나간 첫 세계대회인 ‘상하이 세계 양궁 월드컵’에서 강 선수는 양궁 리커브(양궁 경기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활의 위, 아래, 끝 부분이 반대 방향으로 구부려져 있는 활) 3관왕(여자 개인전, 여자 단체전, 혼성전)을 차지했다. 강 선수는 웃으며 “그 때는 멋모르고 그냥 활을 썼던 것 같아요”라고 했다.

세계 최정상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나라 매년 국내 대회에서 정해진 점수를 넘은 120명 정도의 선수들 중 자체 경기를 통해 32명을 선발한다. 같은 방식으로 2차 선발전을 치러 8명이 ‘국가대표에 도전할 자격’을 얻는다. 이 8명이 기준 국가대표 8명과 3차 선발전을 치른다. 3차 선발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뽑힌 8명이 국가대표가 된다. 그나마도 그 사이에서 국가대표 1군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자체 경기를 통해 3위 안에 들어야 한다. 몇 차례의 난관을 거쳐서야 1년 동안 국가대표 ‘신궁’의 자격을 얻는 것이다.

2015년,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에 뽑히고 첫 세계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한 강 선수이지만 길은 순탄치 않았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강 선수는 “2015년에 월드컵 이후에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며 “최대한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지만 선발전에 떨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양궁을 그만 두고 싶기도 했고 활 쏘는 것도 너무 두려웠다”며 그 당시의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했다. 리우 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한 장혜진 선수는 국가대표 최종 선발 단계에서 강 선수를 1점 차이로 제쳤다. “그 때는 힘



강채영 선수가 국제캠퍼스 양궁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 선수는 누구보다 우리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제가 경희대라는 학교를 알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는 그는 “학교에서 너무 좋은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제 대회에서 차용하는 가슴 보호대에 항상 학교 마크를 달고 나가는 모습에서 강 선수의 자부심이 읽혔다.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열린 2017 현대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2관왕(여자 단체전, 혼성전)을 차지한 강 선수는 “상반기 성적이 그리 좋지 못했는데 하반기에 성적이 잘 나왔다”며 “올 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했다. 시차 적응도 힘들었지만 좋은 결과를 받아들고는 좋은 점이 더 기억에 많이 남았다는 강 선수는 현재 국가대표팀 막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표팀에서 배우는 자세로 임한다고 한다. “경기 운영 측면에서 선배님들에게 많이 배운다”며 “(장)혜진 언니나 (기)보배 언니의 경기 운영, 경기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많이 질문하고 배우려고 한다”라고 했다. “혜진 언니가 이번 대회 대표팀의 맘언이었는데 단체전에서 선수들을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운동이 없을 때는 친구와 맷집을 탐방하거나 쇼핑을 즐겨 하고 특히 비누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강 선수의 모습에서 국가대표 양궁 선수이기 이전에 평범한 대학생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내년에 열리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것이 다음 목표라는 강 선수는 “항상 모든 대회에 임할 때 3관왕의 목표를 세우고 들어간다”며 “최종 목표는 그랜드슬램(4개의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올 해 좋은 성적 거두었다고 풀어지지 않고 선배들 끼어갈 수 있게 더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와 경희대를 빛내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국가대표를 하다보면 부담감이 정말 크다”는 강 선수는 “지금까지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대한민국 양궁을 계속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무겁기 때문이다”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은 어느 것에도 비교하지 못하는 행복이라고 한다. 그는 “학교 대표로는 제가 우리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과 제가 수상을 꼭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면서도 “국가대표를 하다 보니 국내대회에 대한 부담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들었지만 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라는 강 선수는 “그걸 계기로 많이 성숙해지고, 경험을 얻어 어떻게 시련을 헤쳐 나가야 하는지도 배우게 됐다”고 했다. “시합 다니면서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성적도 점점 좋아지면서 이겨냈디”고 말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양궁을 시작한 강 선수의 양궁경력은 올해로 13년이다. 전학 간 초등학교에 양궁부가 있었고 교실에 감독님이 들어와 양궁 해 볼 사람을 묻는 질문에 손을 든 것이 계기였다. ‘그냥 활이 멋있어 보여서’였다. 강 선수는 “활을 쏘 때, ‘아! 10점이다’하는 느낌이 온다”며 “순간의 집중력을 최대로 모을 때의 기분에서 양궁의 매력을 느낀다”고 했다.

강 선수는 국가대표 양궁 선수이기도 하고 경희대 양궁 선수이기도 하다. 학기 중에는 수업을 듣고 수업이 없을 때는 훈련에 들어간다고 한다.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활만 쏘다가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웨이트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한다. “양궁

은 감각이 위낙 중요하기 때문에 활 쏘는 시간이 많다”며 “방학 중의 일과가 학기 중 보다는 지루하다”고 웃으며 답했다.

국가대표팀 소속의 강 선수는 선수촌에서 생활한다. “오전·오후 운동 후 저녁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시간에 쉴 때도 있고 부족하다 싶으면 개인 운동도 한다”며 “처음에 선수촌에 들어갔을 때 국가대표라는 실감이 잘 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구나 라고 느끼며 자랑스러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국가대표를 하다보면 부담감이 정말 크다”는 강 선수는 “지금까지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대한민국 양궁을 계속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무겁기 때문이다”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은 어느 것에도 비교하지 못하는 행복이라고 한다. 그는 “학교 대표로는 제가 우리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과 제가 수상을 꼭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면서도 “국가대표를 하다 보니 국내대회에 대한 부담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18학년도 전기 유엔평화학과 평화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국제기구 진출의 첨경」

- UN산하 및 관련기구인 UNITAR, WFUNA 인턴쉽 매년 18명 제공
- 졸업시 유엔평화학 석사학위수여(Master of Peace Studies)
- 전과목 영어로 강의
- 주중, 야간, 주말 수업 제공

■ 모집과정: 석사과정

■ 모집전공: 유엔평화학과(유엔평화전공)

■ 수시모집기간: 2017년 10월 10일 ~ 2018년 1월 15일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접수완료 원서기준 수시면접 실시)

■ 합격발표: 면접완료 대상자기준 합격자 수시발표

■ 온라인 원서접수: <http://www.unpeace.kh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문의처

• 이메일: gip@kh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제43회 중앙도서관 독서토론회

‘대한민국 미래를 보다’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2017.11.22(WED) 15:00



강연 | 이만열 교수 (경희대 국제대학)

일시 | 2017.11.22 (수) 오후 3시

장소 |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내용 | 강연, 도서증정행사, 사인회

